

## 양승조(부산상고 53회 동기) 1차 구술

1. 구술자: 양승조
2. 면담자: 강희영
3. 촬영자: 권용협
4. 구술일자: 2011년 12월 7일
5. 구술장소: 부산 수영구 구술자 사무실
6. 구술분량: 05분 13초 / 일부 공개
7. 주요내용: 결혼과 사법시험 합격 당시 상황

구술자 : 바로 뒷집에 있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고 그렇게 연애를 한 거죠. 그런데 그전에는 공부하면서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어느 날 편지가 와서 결혼한다 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. 놀랐고. 그거는 서로가 한 동네, 처녀총각이라고는 거기 없었거든요. 앞집에 동아대 다니던 애가 하나 있었고.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서로가 위로가 되고 또 다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위로가 되고 또 그렇게 만남으로 해서 친구가 친구처럼 지내다가 그렇게 발전했겠죠.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니까. 친구로, 오빠동생 하며 친구로 지내다가 그렇게 됐지. 발전한 그게 더 서로 이해하고 드니까 다른 어떤 결혼보다 더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.

결혼을 하는데 ‘친구라고는 니 하나만 초청한다’ 이래 가지고 편지가 왔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 엠비씨(MBC) 방송국에 근무하는 이상익이 하고 같이 갔지요. 가서 인제 결혼 그 전날 가가지고 자고. 같이 자고 결혼식 아침부터 보고. 그날 밤에는 신부 집에서, 권 여사 집에서 잤습니다. 자는데 우리끼리 ‘밖에서 부르면 살짝 나와라’ 그렇게 약속이 돼가지고 밖에서 휘파람을 확 부니까 그때는 택시가 시발(始發)택시라고 긴 거, 뭐한 열... 하여튼 좀 큰 택시 있잖아요, 그거 택시인데. 그걸 불러놓고 부르니까 신랑이 나오니까 집에서 그 장모님 붙들고 몬(못)가라고 특히 부산은행 다니던 처남, 동생은 따라오다가 미끄러져 떨어지기도 하고 이랬거든요. 그래서 진영에 가서 술 한 잔, 친구들끼리 술 한 잔 하고. 거기 가서 식사를 하고 술 한 잔 하고 밤 열두시 넘어서 들어왔지요. 오니까 신랑이 안 오니까 난리가 나니까 찾으러 온다고 나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들어왔습니다. 그래가 첫날밤을 그렇게 치르고. 치르고 인제 제가 사

진을 쪽 찍어준 걸 전부 앨범을 만들어가지고 뒀는데 이 친구가 그 다음에 앨범 가지러 또 나왔습니다. 나와 가지고 그때는 공부할 때니까, 공부할 때니까 여유도 없었고. 이 앨범 만들어줬는데 그날 또 같이 내하고 다니면서 술을 또 많이 마셨어요. 그래서 앨범도 잊어버리고 그냥 아침에 간 거예요. 며칠 있으니까 그 술집에서 ‘아 여기 뭐 앨범, 사진앨범이 하나 결혼식 앨범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뭐 사장님 얼굴이 들어있던데요’ 하고 전화가 왔었어요. 그게 무현이 사진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다음에 왔을 때 내가 줬지요. 그때가 칼라사진이 나오기 직전이니까 흑백으로 다 찍었습니다. 찍었고.

그러다가 고시시험 치고 바로 그래가 전화를 했습니다. 자기 집에는 전화가 안 되고 그때 이장집인가 전화를 해가지고 연결을 해가지고 “축하한다” 이러니까 “온나” 이러니까 내일 잔치, 집에서 마을에서 간단하게 잔치를 하고 그 다음날 바로 부산으로 왔었습니다. 그날은 조금 고급 술집에 가서 아주 거하게 한잔을 하고 “우리 집에 가서 아버지, 엄마한테 인사해야 안 되겠나?” 하니까 “아유, 오늘 내가 술이 취해서 가면 안 된다” 이래가 여관에서, 호텔에서 같이 잤습니다. 부산역 앞 프라자호텔에서 같이 자고 아침에 출근한다고 같이 차를 타고 나오는데 그때 김영삼씨가 부산데파트에서 현판식<sup>1)</sup>을 했었습니다. 그때 신민당인가 현판식 할 때 거기 내려가지고 신민당 김영삼, 대통령되기 훨씬 전이죠, 현판식한다고 거기 내리고 나는 거기에서 한 이삼백(200~300)미터밖에 안되니까 우리 사업체가. 거기 내리고 나는 가고. 거기 현판식 하는 걸 또 보고 왔더라고요. 그니까 이제 고시 패스하는 날이 그랬죠. 그러고 나서 금방 연수원에 가고 또 첫 발령은 대전에서 받았고.

## ■ 구술자 주요이력

1948. 부산 출생

1966. 부산상업고등학교 졸업

1970.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2년 중퇴

---

1) 1975년 3월 26일 사법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고 3월 27일자 신문에 보도되었음. 1975년 4월 3일 신민당 개헌추진 현판식이 부산에서 열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날짜에 대해서는 구술자의 기억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.

노무현 대통령의 부산상고 53회 동기로서 고등학교 시절 같은 독서실에 다니다 친해졌다. 고등학교 졸업 후 마옥당에서 함께 사법고시 준비를 한 적도 있다. 노 대통령의 결혼식에 초대된 두 명의 고등학교 동기 중 한명이기도 하다. 그런 인연으로 이후 노 대통령의 주요 선거 때마다 힘을 보탤다.